

## 주부의 가치성향과 혼례의식 · 혼례행태와의 관계

황기아 · 이복희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 대구가톨릭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혼례란 성인 남녀가 사회적으로 일정한 의식을 거쳐 부부가 되는 것이고, 혼례는 그 시대의 도덕과 의식·관습의 총체인 동시에 사회적·법률적 제한을 받는 제도로서 인간 생활에서 필요한 문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이정우, 1997), 한 사회의 기초적 구성 단위라 할 수 있는 가족은 혼인을 통하여 형성된다. 또한 모든 사회가 저마다 다양한 형태로 혼인에 대한 법제적 승인이나 규제를 설치하여 두고 있는 것도 혼인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인 제도는 당해 사회가 지닌 특성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핵심적인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이해된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이 표출되고 특히 근대화 이후 여러나라의 문화적 유입과 함께 1960년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제반 환경의 영향으로 가족 형태는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생활 양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 소득수준의 향상, 개방화 등의 사회현상은 혼례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혼례문화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과시적이고 경쟁적인 혼례문화를 만연시키면서 과소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낭비적인 혼례문화로 변질시키고 있다.

한편 혼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혼례가 지녔던 본래의 정신적인 의미나 의의를 상실한 채 물질만능주의, 상업주의, 체면주의, 가족이기주의 등에 휩쓸려 혼례문화가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하나의 저해요소가 된다는 지적되어 왔다. 즉 과소비와 사치풍조, 허례허식,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가족간의 갈등, 이혼의 증가 등이 혼례의 병폐로 야기된다고 밝혀지고 있다. 혼례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폐해에 대한 지적과 연구는 계속되어오는 사회문제의 주제로써 학계를 비롯하여 몇몇 사회단체에서는 실태조사(여성개발원, 1996; 가정생활개선회, 1999)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혼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부의 가치·가치지향성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실제적으로 주부는 가정의례를 준비하는 주관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래 주부의 취업 증가, 가치관의 변화 및 종교 등에 따라 도시 주부들의 혼례에 대한 의식 및 실제수행은 상당히 변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정생활문화의 전수자인 주부의 가치지향성과 혼례의식·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의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들의 가치지향성과 혼례의식 및 수행정도를 분석하여 전통생활문화인 혼례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현대사회에 적합한 혼례규범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